

# 공수처장 1차 후보 최대 15명... 여야, 장외 신경전

### 변협,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13일부터 공식 검증 돌입 이낙연 "이달내 임명돼야"...야당 추천위원, 비토권 행사할 듯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 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들로부터 1차 후보 추천을 받았다. 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교수·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는 위원당 5명까지 최대 35명을 추천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0~15명 정도가 추천된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후보를 취합하면 13일 회의에서 자료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찬희 변호회장 등 일부 위원이 이날 추천 명단을 공개한 만큼, 곧바로 '물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견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 공식적인 검증이 시작되는 13일 회의는 추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가능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비워 뒀고,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조속한 추천을 원하는 여당의 입장과 합법적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추천위 내부에서도 '여야 대리전' 형태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야당 측에서 추천 과정에서 '시간 끌'을 한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잠정적으로 내주 국회 법사위의 법안소위 일정도 잡아 둔 상태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는 "여당이 이달 안에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고 압박하니 부작용이 생기고 추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정부가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면,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닌 검찰을 1호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추천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법사위, 검찰 특활비 현장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가운데) 간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리얼미터, 국민의힘 서울·부울경서 민주에 지지율 앞서 엠브레인 차기대권 적합도, 이재명 23%·이낙연 22%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1주차(2일~6일) 주간집계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0.1%포인트 내린 34.7%, 국민의힘은 0.9%포인트 내린 28%였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6.7%포인트였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민주당 30.6%, 국민의힘 32.2%로 오차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전주 대비 3.5%포인트 빠진 반면,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오르며 역전이 이뤄진 것이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전주 대비 3.5%포인트 내린 29.5%, 국민의힘은 1.3%포인트 내린 34.2%로 집계됐다. 양당이 모두 지지율이 빠졌지만 민주당의 낙폭이 더 크게 발생하며 4.7%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서울이 2.4%포인트 하락한 40.9%, 부울경은 1.5%포인트 내린 43.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서울이 55.1%, 부산이 50.7%였다. 내년 보선이 열리는 서울, 부산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한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부동산 폭등과 전·월세난, 코로나19 장기화로 베팅 끝에 몰린 자영업자 문제 등 켜켜이 쌓여있던 시한폭탄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에 앞서 지난 8일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3%, 이 대표는 22%를 기록했다. 이들 기관의 지난달 22~24일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와 이 대표가 각각 23%, 20%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두 대권주자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4%,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로 각각 집계됐다.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 “완전한 지방분권 위해 준연방제 가야”

### 광주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진정한 지방 분권인 준연방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원 지사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를 부분 부분 나눠놓는다고 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4~5개의 권역으로 준연방제 같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은 피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비롯한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메가시티 등 광역단체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기업투자 등 특정업종과 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연방제에 대해 연구해 차기 대선에서 (저의)공약으로 내걸 계획이며, 준연방제 추진을 당에도 요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여야의 차기 대권 후보로 물망에 오른 분들이 대부분 광역단체장 출신들이다”면서 “그들이 모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느낌을 알기 때문에 현 정부보다 훨씬 재정분권 정



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원 지사는 차기 대선과 관련, “내년 4월 이후 예나 아권에서는 본격적인 지지율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워낙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자들이 두드러져 있고,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놀리고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야당의 계절은 내년 4월 이후이고, 7월부터 본격적인 야권의 대권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원 지사는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는 “최근 윤석열 총장이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억지로 앞을 수 없고,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지 지지율은 인지도 싸움일 뿐이다”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상 정치 지도자로 나서는데 순간 달라질 것이다”면서 “정치로 나서는 순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하고,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

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 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 원(49%)이나 증가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되니 수도권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한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온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제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